

2026년 7월, 출범 확정 제물포구·영종구 서구·검단구		<h1>보 도 자 료</h1>		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	
배포일자		2024년 6월 13일(목) 총 2매			
담당 부서	도시개발과	담당자	• 신도시팀장 김경동 ☎440-3321 • 담당자 형경수 ☎440-332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	15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검단신도시 발파민원 2년 만에 해결돼 공사재개
 - 인천시, 권익위와 함께 암반층 발파 민원 조정·합의 이끌어 -
 - 폭약 발파 50% 이내, 사전 안전진단과 하자 보수, 공법 사전 협의 공유키로 -

인천광역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검단신도시 AA25블록 단지조성 공사와 관련해 암발파 반대 민원을 제기한 주민(3,128명) 고충 민원이 ‘조정·합의’를 통해 중재 해결했다고 밝혔다.

앞서 검단신도시 2-2공구(인천시 서구 불로동 산74번지 일원) 공사 진행 중 대규모 암반층이 발견됐다. 인근 주민들은 이곳이 주거지와 100m 인접해 있어 발파 공사를 시행하면 주변 공동주택단지 등 2,600여 세대에게 큰 피해가 우려되니, 폭약을 사용하는 발파 공법 대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안전한 공법을 채택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요구해 약 2년여간 갈등이 지속되며 공사가 지연됐다.

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는 주민들의 우려는 공감하고 주민 안전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하겠으나, 암반 발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.

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, 시험발파 2회 등 주민 간담회 6차 걸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LH와 주민 간 ‘조정·합의’를 끌어냈고, 6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본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, LH, 비상대책위원회, 인천시 및 관계기관 등이 조정서에 합의하였다.

조정서 주요 내용은 폭약 발파 50% 이내 사용, 사전 안전진단, 하자 보수, 발파 공법 사전 협의 공유,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다.

유정복 인천시장은 “이번 조정서 협약 결과는 우리 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, 도로공사와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많은 공사에서 발파 공법이 시행되고 있어 갈등 조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”이며, “우리 시에서도 조정서 내용대로 공사가 안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5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